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본모임 창립 이후 20년 째(2012년 까지 총450명/총지급액:약6억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은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의 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소 성적은 뒤처지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추천해주세요. 단 정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 **장학 대상** : 전국 고등학생 (30명 내외)
-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 **장학 내용** : 수업료와 학교운영회비 전액
- ▶ **추천자** : 맑고 향기롭게 회원,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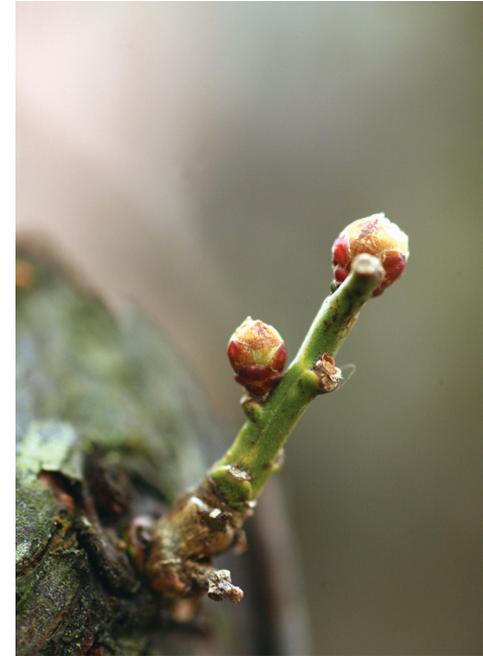
- ① 추천서 - 추천서 양식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의 추천 사
 - 학교 장학생 담당자의 확인 기재
 - 학생의 주소, 연락처, 학년, 반 명기
- ② 학생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본, 초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 **추천서 접수 마감** : 2013년 3월 23일(토) 우표소인까지
-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3년 4월 5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 **문의처** : 02)741-4696~7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매화는 고목의 가지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 꽃망울이 좋다.
피어나기 직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그 꽃망울에
꽃보다 진한
충만감이 깃들어 있다.

-법정-

표지 사진 •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
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2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스님 4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처음 마음으로 / 덕운스님 7 오계(五戒)는 수행의 근본

참교육 이야기 13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들!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17 영화, 죽음을 들여다보다

차내음 가득한 시간 21 아동의 차생활(茶生活) 예절(禮節)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24 바람이 불어오는 곳

천진난만 29 광대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30 언젠가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은 빼어난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의 탐 36 경주의 석탑② - 분황사 모전석탑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8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2월 1일 발행 / 통권 216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051)898-2672~3 / 대전모임: (042)823-0770 / 경남모임: (055)266-0710 /
광주모임: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글 • 法頂(스님)

나는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일용에 쓰일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가지고 똑딱거리고 있으면 아무 잡념도 없이 즐겁기만 하다.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또한 즐겁다.

며칠 전에도 아궁이의 재를 처내는데 쓰일 고무래를 하나 만들었다. 전에 쓰던 것이 망가져 다시 만든 것이다. 톱으로 판자를 켜고, 나뭇단에서 자룻감을 찾아 알맞게 다듬고 똑딱똑딱 못을 박아 완성해 놓았다. 시험 삼아 새 고무래로 재를 쳤더니 고래가 흰히 들여다 보이도록 아궁이 속이 맑아졌다. 아궁이 속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불도 잘 들인다. 고무래 같은 걸 시장에 서는 팔지도 않지만 만약 그걸 돈을 주

고 사다가 쓴다면, 손수 만들 때의 그 즐거움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처음 불일암에 들어가 만든 의자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짱하다. 장작더미 속에서 쓸 만한 참나무 통장작을 고르고 판자쪽을 잇대어 만든 것인데, 사용 중에 못이 헐거워져 못을 다시 박은 것 말고는 만들 때 그대로다. 그때 식탁도 함께 만들었는데 몇 차례 암주가 바뀌더니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산중에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목의 생김새에 따라 그에 맞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큰절 헛간에서 굴러다니던 밤나무 판자를 주워다가 대패로 밀고 톱으로 커서 맞추어 놓은 폭이 좁은 서안書案은 지금도 그 암자의 큰방에서 요긴하게 쓰

이고 있다. 중노릇과 목수일을 간단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고 무심하기로 말한다면 중노릇보다 목공일 쪽이 그 창조의 과정에서 훨씬 앞설 것이다. 사람끼리 어우러지는 중노릇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생놀이’가 끼여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좋아서 하는 직업인이 얼마나 될까? 대개는 그 일이 좋아서,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수입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도 지니지 않고 책임감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일과 사람이 겹도는 불성실한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일에 흥미가 없으면 일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책임을

느낄 때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 간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장인匠人들은 그 일에 전 생애를 걸고 있다. 그들은 보수에 낯을 팔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순간순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55세 혹은 60세가 되면 직장에서는 일을 그만 쉬라는 정년停年을 맞는다. 그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흥미와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현역이다. 인생에 정년이 있다면 탐구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멈추는 바로 그때다. 그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

타율적으로 관리된 생활방식에 길들여지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심화시킬 그 능력마저 잃는다.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는 하루하루 마모되어 가는 기계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인내와 열의와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일

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옛날 장원의 한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원을 구석구석 아주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정원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 화분마다 꽃을 조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를 기특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 해서 품삯을 더 받을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다 그토록 정성을 들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 정원을 몹시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나무통으로 된 화분에 꽃을 새겨 넣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손재주도 있는 것 같아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킨다. 몇 년 동안 조각 공부를 한 끝에 젊은이는 마침내 크게 이룬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최대의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품삯과는 상관도 없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 것이다. 그는 화분의 나무통에 꽃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5분이나 10분 동안만 더 손질을 하면 마저 끝낼 일을 시간이 됐다고 해서 연장을 챙겨 떠나는 요즘의 야박하고 약삭빠른 일꾼들 눈으로 보면, 그 젊은 정원사는 숙맥이요, 바보로 보일 것이다. 자신의 일에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가까이 땀 흘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높고 귀한 존재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피우라. -오두막 편지 중에서

오계(五戒)는 수행의 근본

글 ● 德 耘(스님)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삼계의 고통이 마치 불붙는 집, 즉 화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바세계뿐 아니라 천상세계와 색계, 무색계까지도 모두 나고 죽음이 끊임없는 괴로움의 세계란 뜻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금강경>의 말씀처럼 중생이 사는 세상만사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고 꼭두각시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진리에 눈이 어두워서 전생이니 내생이니 천상세계니 지옥세계니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착하게 살라고 방편으로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에서도 말씀하시듯 인간과 축생세계가 환화(幻化)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듯 지옥, 아귀, 천상의 세계도 환화(幻化)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도 윤회의 세계는 실체는 없지만 중생의 업력에 의하여 시간을 따라 전변하는 환화(幻化)로서 존재하고, 윤회를 벗어난 해탈의 세계는 허망한 업이 소멸되므로 인해 무시무중으로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경>의 지옥명호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지옥세계를 표현합니다.

“혹 어떤 지옥은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끓이고, 혹 어떤 지옥은 항상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량없는 똥과

오줌이며, 많은 불창(불에 달군 쇠창)으로 찌르며, 쇠로 된 뱀이 서리고 감기며 여러 지옥 가운데 다시 백천고초가 있거늘…….”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천당이란 곳을 누가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효스님께서 쓰신 <발심수행장>에 보면 “無防天堂(무방천당)에 少往至者(소왕지자)요, 無誘惡道(무유악도)에 多往入者(다왕입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천당에 가는 것을 누구하나 막는 사람 없지만 가는 사람은 적고, 악도에 오라고 누구하나 유혹하는 사람 없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생들이 선도에 들지 않고 악도에 나서 괴로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삼독 즉 탐·진·치의 번뇌로 재물을 삼고, 사사오욕(四蛇五欲)으로 자기의 보배를 삼는다고 <발심수행장>에서 원효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삼독(三毒)과 사사오욕(四蛇五欲)이

란 우리의 참 생명을 뺏어가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 무너져 없어지는 허망한 육신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육신(六身), 즉 이 몸뚱어리는 자기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몸뚱이는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선하고 덕스러운 사람은 눈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마음이 포악하고 거친 사람도 눈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말씀하시길 “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알력과 분열과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고(苦)를 자초하는 원흉이 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야말로 우리를 악도로 이끄는 주범인 것입니다.

네 가지 바라이 죄(살생, 음행, 절도, 망어)가장 중한 죄로서 승단에서 추출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

며 선업을 쌓아가는 사람은 결코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선도에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길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삼세의 인과가 끝없는 순환으로 없어지지 아니하니 이생을 헛되이 보내면 내생에 후회해도 소용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생에 도를 닦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수행의 근본이 되는 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계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계가 오계(五戒)입니다. 그 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살생(不殺生)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죄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생은 어떤 명분이라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같은 인간뿐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의 생명만 소중한 것

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생명도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육도의 중생들은 자기네의 몸뚱이를 생명자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고로 존귀한 것이요, 자신의 전부인 것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목숨이나, 자기의 부모와 처자들 권속의 생명을 빼앗은 상대방에 대하여 극한적인 원한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유정(有情)을 죽이면 그 죽인 유정(有情)의 원한을 덮어쓰며 그 과보가 언젠가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생에 단명하고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것과 재앙 등으로 불구가 되는 것도 대개 전생의 살생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루려고 도를 닦는 스님들도 전생에 살생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 만큼 마장이 많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당할 때 원한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식을 할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심도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마땅히 육식을 멀리하고 가능하다면 불살생의 금계를 생명과 같이 여겨 범함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불투도(不偷盜)입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는 재물을 사기협잡 따위로 속여 이를 뺏거나, 강제로 탈취하는 일은 큰 죄업을 짓는 것입니다. 원래 인과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간 것이 있으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절집에 상주물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상주물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남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에 기도수행하며 복을 지으러 온 신도 분들이 무심코 이런 일을 행하여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는다면 불행한 일이니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한 업력은 그 경중에 따라 자신을 지옥으로 인도하거나 소나 말의 뺨속으로 끌어들여 응분의 빛을 번재하기 마련입니다. 금생에 빈천하게 사는 것도 알고

보면 복을 짓지 않았거나, 전생의 도둑질에 대한 과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불사음(不邪淫)입니다. 남녀의 순결은 생명과 재산 못지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관계로 맺은 배우자 이외에는 샅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계에서는 음행 자체까지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정(愛情)은 수생(受生)하는 원인이 되며, 윤회하는 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공부를 방해하는 번뇌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음은 정음(正淫/정당한 성교)과 다른 뜻으로 부당 불법한 음행을 말합니다. 물론 난음(亂淫)은 큰 바라이죄에 해당되며, 난음(亂淫)은 동타지옥하는 과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간은 상대의 업을 대신 받는 과보가 따른다고 합니다.

고인이 말씀하시되 “수행하는 이들은 차라리 독사의 입안에 그것을 넣을

지언정, 여인을 범하지 말라”고 경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장율사께서는 “파계한 몸으로 백년을 부귀와 영화 속에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불망어(不妄語)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리도차체론)에 보면 망어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망어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미래나 내생에 어리석어지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폭력에 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로 인한 폭력에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말에 의한 폭력도 육체에 의한 폭력 못지않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에 의한 상처는 나오면 잊혀지지만, 말에 의한 폭력은

영원히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입속에 도끼가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어(惡語)를 하며 그도끼로 자신을 찌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혀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망어라는 것은 남을 속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이간질하는 말, 아첨하는 말, 홍보는 말, 깔보는 말, 거친 말 등 진실하지 못한 모든 말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악한 말들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불행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음주계(不飲酒戒)입니다. 술이란 심성을 혼란케하는 원인이 되어, 먹는 사람의 정신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하니 불음주계를 지켜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러한 오계는 수행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기초 위에 쌓아올리는 건물도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계(五戒)를 함부로 훼손하면, 금생(今生)에 도를 깨닫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오계(五戒)정신을 가지고 그 토대위에서 열심히 정진해간다면 그만큼 공부의 성취도 빠를 것입니다.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지어가는 화두를 생각마다 잊지 말고 꾸준히 지어가시면 됩니다.

화두가 없으신 분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것이 이 무엇인가?”하면서 간절히 자신의 마음 안으로 지어나가야 합니다.

진리란 깨닫고 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밥 먹고 옷 입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씀하시길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염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명(無明)에 가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에 중생 세계인 지옥, 아귀, 축생, 수라등 육도가 벌어진 것이지, 본시 일어나고 멸함이 없는 마음자리는 때 묻지 않은 청정한 자리입니다. 이 마음자리란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한다면 일체만법을 포용하는 자기 생명의 근원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사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년 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줄로 압니다. 년 초에 세운 계획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매 일을 항상 새롭고 기쁜 날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불기 2556년 12월 초하루
(2013년 1월 12일)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들!

글 • 김용택(교육 칼럼니스트)

학교의 또 다른 모습!

1교시가 끝나면 학교매점은 문전성시다. 빵, 우유, 아이스크림, 스낵 과자류 등등……. 누구 돈을 먼저 받을지 모를 정도로 학교매점의 아침은 바쁘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으로 달려가는 아이들! 매점 한쪽편에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익지도 않은 라면을 건져 먹고 있는 학생도 보인다. 어떤 아이는 며칠이나 굶은 아이처럼 빵과 우유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다.

이들이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일까? 아무리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 시절이라 해도,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를 한다면 1교시가 끝나는 아침 9시 반, 간식을 찾지 않을 리 없다. 학교

매점을 통해보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삶을 살펴보자.

어른들은 말한다. 그래도 청소년 시절이 좋았다고……. 혹은 학창시절의 낭만을 말하고 혹은 고교시절의 추억을 말한다. 추억은 아름답다(?). 그런 말은 경쟁교육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도 유효할까?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돼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는 학교. 살인적인 입시위주의 경쟁 속에 내던져진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결코 낭만일 수 없다. ‘졸면 죽는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마누라의 몸매)이 달라진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라는 급훈이 붙어 있는 교실에는 낭만이란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살인적인 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곳이
오늘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고
달프고 힘겹다.

‘아침 7시 15분 까지 등교해서 20분부
터 수업시작, 이른바 -1교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12시 10분
까지 수업,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1
시간 점심시간, 또 1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4시에는 청소시간, 4시 20분
부터 6시 10분 까지 수업…….

1시간 석식(저녁), 나머지는 이른
바 야간 자율학습(빨소라… 제 자율학
습)10시에 학교 끝나고 교문 앞에서 기
다리는 학원 차를 타고 12시 반까지 학
원 수업 집에 가면 1시, 씻고 밥 먹고 하
면 아무리 빨라도 2시……. 학생들은 인
조인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어느 청소년 신문에 올라온 청소년들
의 하루 일과다. 어머니와 전쟁하다시
피 잠이 깬 아침 6시. 학원 차가 집 앞에
지나가기 5-10분 전야야 일어나 세수는
커녕 잠이 다 깨지 않은 채로 학교로 간

다. 아침밥이 넘어갈 리 없다. 학교의 매
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1교시 아침 시
간은 비몽사몽간이다.

수능과목이 아닌 1교시는 부족한 잠
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잠이 겨우 깨는
9시 반경. 이 시간은 생리적인 배고픔
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매점을 찾는다.
이 시간 아이들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
은 무엇일까? 1교시가 끝나기 바쁘
게 뛰여가는 매점이라는 곳. 탄산음료
와 방부제와 농약이 얼마나 들어 있는
지, 허용치의 한계를 얼마나 벗어나는
지, 그 많은 연구논문을 작성해 승진하
고 출세(?) 하는 교원들의 논문에는 그
런 내용이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받는 자식들이다.

말이 좋아 ‘내일의 주인공’이니 ‘젊어
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며 학교에서 학원
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도록 등 떠
밀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을 놓고 말이 많다. 학교폭
력을 뿌리 뽑겠다고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별별 묘책을 다 내놓
고 있다. 그런데 한걸음만 뒤로 물러서
서 보자. 학생들 간의 폭력만 문제인가?
교육과정도 어기면서 청소년들을 새벽
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붙잡아 취미
도 특기도 소질도 무시하고 죽기 살기
로 영어, 수학 문제 풀이만 시키는 교육
당국은 폭력이 아닌가?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업
주의는 또 어떤가? 교문을 몇 발짝만 나
가면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만화방이며
게임방이며 PC방은 어떤가? 교육은 학
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사회와 가정,
학교가 3위 일체가 될 때 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이유도 원론만 가르치
고 현실은 청맹과니로 만들어 냈기 때
문이 아닌가?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없이 오직 20
평의 교실에 40여명을 가둬놓고 새벽부

터 밤 10시까지 문제풀이만 시키는 학
교. 100m 달리기도 할 수 없는 학교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사는 공간이 그
렇고, 체형에 맞지도 않은 나무의자에
하루 14-5시간씩 앉혀두는 학교는 폭
력 아닌가?

오죽했으면 매년 10만 명이 넘는 학
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
을까?(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고교
생 10만6022명-교과부 자료) 2011년에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모두 150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
살 사망률 1위이요, 자살이 10대 청소년
의 사망원인 가운데 2등을 차지하고 있
다.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
만 2011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무려
15,906명이다. 한 달에 1325명, 하루 평
균 5.5명이 자살하는 자살 공화국이다.

성적을 비판해 자살하는 학생, 학교
가 싫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학교폭
력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경 하
듯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교과부는 학교폭력이나 자살대책으로

내놓은 게 '밥상머리교육'이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 부모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상을 두고 밥상머리교육타령이나 하는 교과부는 폭력이 아닌가?

청소년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 잘못일까?

교육과정도 교육목표도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일류대학 입학생 수에 따라 일류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나라. 어른들은 말한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대학이 대학으로서 구실만 한다면 젊어서 고생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고등교육법 제28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학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치고 자기 전공과목을 살려 취업하는 사람들이 몇%나 될까? 입학만 하면 누구든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학문탐구보다 고시공부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시키는 게 대학이 할 일인가?

'헛고생'이라는 말이 있다. 효율성 면에서나 인간적인 면에서 점수 몇 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켜 막대한 골목으로 내모는 게 효율성인가? 수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학자들. 한 세기가 가깝도록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된 현실을 필연으로 당연시 하는 게 양심적인가?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어쩌면 나이든 사람보다 현실에 더 민감하고 내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느니 '너도 크면 옛말 할 것이라는…….'속보이는 위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

모든 날의 희생으로 얻는 특정한 날의 행복이란 없다. 청소년들을 사람대접부터 하라!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영화, 죽음을 들여다보다

글 • 서정민갑(대중문화의견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로장생은 불가능합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죽음마저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일은 날마다 죽음으로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참 덧없어집니다. 아무리 즐거운 날도 언젠가는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결국은 쭈글쭈글해져서 죽게 된다는 건 서글픈 일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부질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이고 숙명적인 운명, 죽음.

최근 노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행복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인지 죽음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옵니다. 수년 전부터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혼자 살다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사회가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귀결이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고독사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게 인생이지만 이 또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마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서를 쓰고 남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례를 치를 비용도 미리 준비해놓아야 하고 장례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끝까지 애써야만 겨우 유지되는 것인가 봅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절차적인 준비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겠지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사유하고,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일을 대비하는 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지요.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죽음은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상영 중에 있는 영화 세 편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화 〈엔딩 노트〉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찍었다는 뜻이지요. 이 영화의 감독인 마이클 스나다는 아버지 스나다 도모야키

가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을 직접 찍었습니다. 스나다 도모야키는 일본의 경제 부흥을 이끈 샐러리맨으로 부지런히 살아오다 정년퇴임하고 인생을 비로소 여유롭게 즐기게 되었을 때 말기암 관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차분히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버킷 리스트(Bucket List)를 정리하고 그 목록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 버킷 리스트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 믿지 않았던 신을 믿어보기’,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야당에 표 한 번 주기’, ‘일만 하느라 소홀했던 가족들과 여행가기’는 그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암 4기 환자로서 몸과 마음이 힘겨움에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던 가장이 암 때문에 갑자기 늙어버려 머리카락이 빠지고, 검버섯이 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실제 모습은 그 자체로 어떤 사건이나 설정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죽음의 실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내 사랑도 내 가족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면 그저 남의 일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연하고 즐겁게 삶을 정리하는 스나다 도모야키의 모습은 그가 한 생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은 바로 자기 삶의 총정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그지만 사랑하는 손녀들 앞에서 그는 그도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의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입니다. 그 동안 〈피너 게임〉, 〈피아니스트〉, 〈하얀 리본〉등 인간의 본성을 날



카롭게 파헤친 영화로 주목받았던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신작 〈아무르〉는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담담하게 성찰합니다. 노부부 조르주와 안니는 평생 음악을 가르쳐온 우아하고 다정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안니가 반신불수가 됩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도 어렵고, 먹기도, 싸기도 어려워집니다. 느닷없이 닥친 자기 몸의 변화와 불편은 안니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센 안니가 반신불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려다 실패하는 모습과 배설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는 모습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그래서 더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 영화에는 어떤 기적도 없고, 어떤 신과도, 어떤 낭만도 없습니다. 부모의 죽음, 노년의 죽음을 다룬 한국영화라면 관객을 평평 울리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감정을 쥐어짜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그들이 평생 살아온 공간 안에서 노년과 죽음을 담담하다 못해 냉정하게 기록하듯 찍었습니다. 이것이 늙는 거라고, 이것이 죽는 거라고 말하는 영화는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도 피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죽음을 응시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관객들도 적지 않더군요. 이 영화의 관객이 예술영화의 관객 수로는 유례없이 4만을 돌파한 것은 그 고통과 진실과 성찰에 동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심플 라이프> 역시 죽음에 대한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배우들 가운데 특히 유명한 배우 유

덕화가 나오는 이 영화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배려와 사랑에 대한 담담하고 아픈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직 보지 못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본 주위 사람들이 눈물까나 쏟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영화라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잘 맞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겠지요. 어쩌면 죽음이 있어 우리는 겸허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처음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고 그것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갑시다. 아직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아동의 차생활(茶生活) 예절(禮節)

글 • 이순희 (수선행)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있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주는 사회예절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여, 상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복잡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조급하고, 불안정해져서 내면의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에게 바른 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는 예절 실천교육과 도덕적 인성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이다. 영유아기에 바른 생활습관은 성품과 사회성 발달에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예의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차 생활 예절교육은 체험을 통해 언어예절,

인간관계 예절, 전통문화 예절을 생활습관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절차에 따라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찻물을 조심스럽게 따라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께 대접하고, 차를 마시기 전 주변 사람과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고 표현하며, 차를 함께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집중력과 질서는 내적 힘이 쌓여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차에 내포하고 있는 성분은 인체에 유효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정서가 안정되어

서 두뇌의 능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우리 선조들의 아동교육은 지식보다 일상생활적인 것을 중시하여 도리와 범절을 차로써 교육하였는데, 전우(1841-1922)가 지은 『여사서(女四書)』에 “집에는 항상 차와 밥을 마련해 두고 은근하고, 정성껏 대접하고 공경하여 예절을 어질러지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이다.

차예절에 관한 우리 선조들의 시대별 아동의 인성교육을 참고하고자 고전에 따른 아동의 다도 교육기록을 옮겨 보았다.

시대별 아동의 다도교육

㉸ 신라시대

신라시대 다도교육은 15세 전후의 화랑에게 실시하였다.

귀족과 상류층의 자제들인 화랑들이 산천유오중(山川遊娛中)에 화랑사선(永郎, 述郎, 南郎, 安祥)이 차를 다려마시던 돌부뚜막, 돌못, 돌우물 등의 차관계 유물이 강릉 한송정에 있다고 이곡(

李穀.1298-1351)의 동유기 기록에서 고증하고 있다.

㉸ 고려시대

고려 태조 왕건(918-1392)때부터 신라의 제도를 이어 받아 불교를 국교로 하여 불교중심으로 다도교육과 차 의식 및 차 생활을 하였으며, 조정의 차 관리들은 다도교육을 통해 배치되었다.

㉸ 조선시대

고려시대보다 음다풍속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쇠퇴하였으나,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서의 다도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아동의 다도교육에 관해서는 다동시, 다동원, 이덕무의 「사소절」과 전우가 지은 「여사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다.

㉸ 근대

19세기 말엽인 갑오경장 이후 구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식 교육제도를 수립하였으나 아동들의 다도교육은 전

무한 상태였다.

㉸ 일제시대

을사보호조약(1905.11)이후 식민지 교육을 시작한 일본은 다도를 1910년부터 여자전문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본 다도 작법 형식을 이용하여 조선인의 정서감정을 동화시켜 일본정신을 익히게 할 목적으로 다도교육을 실시하였다.

㉸ 현대

교육부에서는 아동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1982년, 전통다도의 교육지도 목표를 각 학교에 시달하여 자율 시범학교 운영으로 일부 학교에서 예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부의 전통다도 교육목표

- 초등학교 : 다도를 통하여 예절을 익혀 예의 바른 자세로 차를 우리고, 마시며 대접할 수 있는 태도로 지도한다.
- 중학교 : 다도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

하고, 다례를 몸에 익혀 차를 올바르게 대접할 수 있게 지도한다.

- 고등학교 : 다도의 정신을 이해하고, 다례를 몸에 익혀 사색하는 성품, 건실한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 참고: 김명배 「다도논고학」

이 외에도 영유아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의 차생활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나 차생활의 근본 덕목은 다르지 않아,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겸양의 차 예절교육은 자긍심과 성취감을 갖게 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문화강좌 ‘다도반’ 회원 모집

- 일시
금요일 오후 1시 30분~3시
- 비용
10만원(3개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글 • 홍정근(사무국장)

스님이 떠나던 날 바람이 불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송광사 뒷산 다비장에서 수많은 추모객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스님! 스니~임!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라고 외쳤지만, 수의나 조사도 없이 또 행장도 없이 평소 입던 가사로 장작 속 대나무 평상 위에 누우신 법정스님은 불길이 오르고, 하얀 연기가 훨훨 피어올랐지만, 끝내 굶다란 장작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나무도 타고, 하늘도 타고, 추모객들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지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평소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 내 것 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해 달라”시던 스님의 유지와 마지막 모습은 그 어떤 임종게보다 강한 무언의 법문이었다.

이 무상한 불길 속에서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길을 가시는 스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새겨야 할 뿐 그저 “화중생연(火中生蓮)”만 외칠 수밖에 없었다.

24시간을 꼬박 탄 불길은 다음날 아침 남은 재를 수습하는 습골(捨骨)이 이루어졌고, 사리도 수습하지 않은 채,



법정스님 다비장

남은 재는 바람이 불어오는 숲으로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스님이 늘 말씀하시던 맑고 또 향기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멈추지 않는 바람 '김광석'

김광석의 범명은 '원음'이다. 범정스님이 생전에 지어준 불명(佛名)이다. '둥근 소리(圓音)를 세상에 내어 부르라는 뜻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스님과 그의 인연으로 94년~95년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노랫말을 회원들에게 들려주었고, 본 모임을 위해 '맑고 향기롭게'라는 노래를 4집 앨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1964년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난 김광석은 수줍음이 많았고, 대학연합 동아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다가섰다.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서 노래 '그루터기가 바로 옛된 김광석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김민기를 필두로한 청년들이 만들어 낸 이 앨범은 명작 중에 명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에 함께한 법정스님, 김광석, 노영심

작이다.

'동물원'을 조직해 서정성 가득한 노래를 들려주었고, 이후 1989년 솔로 첫 앨범을 시작으로 이후 네 장의 정규 앨범을 더 내었는데, <다시 부르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두 장의 앨범 또한 소름 끼치게 좋다.

그런 김광석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광석이는 왜 그렇게 일찍 죽었다니? 아, 광석이를 위해서 딱 한잔만 하자우” 박찬욱 감독 또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속 북한군 병사(송강호)의 입을 빌어 아쉬운 속내를 대신하였고 법정스님 또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 신바 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지

만, 그를 사랑했었고 추억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김광석 다시 부르기' 추모 콘서트는 올해로 4회째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타계한 지 17년이 넘은 김광석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시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김광석이 부른 노래 '꽃'과 김소월의 시 '산유화'를 비교하면 그 유사성이 잘 드러난다.

대중문화평론가 임진모씨는 “김광석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음에 실린 처절하게 이지러진 한 사람, 아니 우리 모두의 진실한 독백이다. 그렇기에 그가 전달하는 노랫말은 잊히지 않고 끝없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되새김질하게 된다.” 며 한마디로 김광석의 음악을 '삶의 읊조림'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그 스산한 심정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고, 서툰 사랑이 하염없이 속상할 때면 '외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로 울음을 삼키고, 철없던 청춘을 떠

나보내야 할 때면 '서른 즈음에'를 되뇌이는 까닭이기도 하다.

대구에서 불어오는 '박창근'의 바람

박창근의 목소리는 청청한 대나무처럼 쭈욱쭈욱 뻗어나갈 때 우리의 귀를 바짝 긴장시키는데,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노래만 듣는다면 김광석과 김창완의 목소리를 만나게 된다. 박창근을 이야기할 때 '포크, 대구, 거리, 채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음악은 포크와 민중가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색적이면서 진심으로 묘사하는 특유의 미성은 노랫말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한다.

박창근은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꽃다지, 노래를 찾는 사람들, 클럽 락밴드 출신 연주인들과 함께 밴드 '가객'을 만들어 보컬로 서울에서 활동을 펼친 적도 있었지만 그의 주무대는 여전히 대구이다. 영화 <라디오스타>의 최곤(박중훈)은 인기가 떨어져 영월로 내려가지만 그는



가수 박창근

스스로 대구의 음악판을 지키는 든실한 노릇들로 남아있는 것이다. 노래로 사회적 약자를 다독여준 그는 10여 년 동안 동대구역에서 결식아웃돕기 거리 공연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2집 음반은 2005년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뽑은 상반기 명반 13개 중 하나에 선정된 바 있고, 생태주의적 사상을 강하게 드러낸 곡들을 선보여 새로운 민중가요의 변화와 자신의 문제의식을 동시에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가 기타를 잡고 노래할 때 음악을 끌고가는 것은 바로 그의 보컬이다. 김광석의 보컬과 흡사하게 투명한 힘이 돋보이는 그의 목소리는 김민기, 김광석 같은 한국의 1970-80년대 포크 음악

에서 엿볼 수 있는 수수함과 정직함, 진솔함이 돋보인다. 아이돌, 힙합, 락, 발라드가 지배하는 가요계에서 통기타와 하모니카로 무장한 포크 가수, 육식 소비량 세계 10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채식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의 색깔은 이색적이기도 할 것이다.

비슷비슷한 노래에 식상해왔다면, 변방의 소리에 한 번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런지……. 아마도 '변방의 재발견'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화려하고 상업적인 중앙 문화에 비해 변방엔 자유로움과 인간미가 가득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다시 불어오는 바람

철저한 생태주의적 사상이었던 범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3주기가 되어간다.

3월의 바람 속에 길 떠나신 스님은 지금은 훨훨 날아서 어린왕자가 사는 별나라에 가셨을까? 아니면 모국어에 대한 애착으로 이 나라의 출가시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을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보고, 스님께서 구현하고자 하신 '맑고 향기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자 한다. 그리고 김광석이 꿈꾸었던 맑고 향기로운,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생각하는 맑고 향기로운이 어떠한 것인지 가수 박창근의 음악과 함께 조금이나마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3월 10일 법정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김광석과 박창근의 노랫말로 준비될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통하여 맑고 향기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보자.....

✧ 바람이 불어오는 곳 ✧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달경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 볼 하늘과 사람들
 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네.

법정스님을 그리며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바람이 불어오는 곳”

■ 일시: 2013년 3월 10일 오후 2시 ■ 장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광 대

청봉(淸逢) 스님



모두가
 라
 영
 영

인생이란 한갓 가는 고래의 불꽃
 잠시 푸른 산 무아위에서 뿜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져 버리는
 거대한 광대,
 아무 의미없는 쇠아 노아원에 가동관,
 바보가 지껄어온 이야기의 재지 않나

언젠가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은 빼어난 교육을 받게 된다

- 티치 포 아메리카 (Teach For America)

글 • 변택주

명문대를 나온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교육을 맡아준다면 어떨까? 1988년 프린스턴 대학생 웬디 콕 Wendy Kopp은 "대학 졸업생들이 저소득층 학교에 가서 두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 교육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989년 졸업논문을 쓰고 그 꿈을 이루려고 1990년 비영리법인 '미국을 위한 교육 Teach For America(TFA)'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저밖에 모르는 젊은이들의 반란

TFA를 출범시킬 때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에게 '저밖에 모르는 세대 Me Generation'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웬디

콕은 자신 같은 젊은이들이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라기보다 뜻있는 일을 찾지 못해 연봉이 높은 회사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함께 할 뜻 깊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티치 포 아메리카(TFA)를 기획하면서 웬디 콕은 미국 학생 20퍼센트가 빈곤층 학생들이고 그 가운데 8퍼센트만이 대학을 졸업한다는 데 주목하고 젊은이들이 변화를 이끌어, 미국을 좀 더 나은 국가로 만드는 리더십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리더가 될 TFA 교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학생들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면, 부유한 가정이나 평범한 가정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학

생까지 여러 배경과 재능을 지닌 교사들이 한데 어울려 가르쳐야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TFA가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달리 빠르게 안정을 찾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경쟁이상은 운영원칙에 있다. 먼저 여러 분야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보람 있는 일에 기꺼이 함께하고 다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봉사 기간을 두 해로 하고, 그동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연봉을 준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 않고 헌신, 성실성, 융통성, 의사소통능력, 열정, 민감성, 자립심, 적극성, 남과 어울리는 힘, 자기평가능력, 학생을 이끌 주도력, 지적능력 12가지를 꼼꼼히 살펴 뽑는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지키는 까닭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일뿐더러, TFA 멤버들에게 으뜸 인재 커뮤니티에 함께 한다는 자부심을 주어,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다 하더라도 하다 말아 학생들과 봉사자가 모두



2012년 6월 한국방과 후 학교에서 이야기 하는 웬디콕
큰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다.

설립 첫 해인 1991년 공립학교에 교사 500명을 보내기 시작해 2011년에는 5천 2백 명을 43곳에 파견, 5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켰으며, 2012년에는 4만 8천여 명이나 되는 지원자 가운데 5천 8백 명을 뽑아 이제까지 3만 3천 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미국 곳곳에서 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초임이 컨설팅사나 금융권에 견줘 절반밖에 되지 않는 3만에서 5만 달러(3400만에서 57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연봉을 받는 데도 해마다 하버드 졸업생 18퍼센트를 비롯한 으뜸 인재들이 앞다

뒤 지원한다.

교사를 키우는 평화봉사단

“30년 전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은 후진국을 도와 나라를 빛내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이 흘린 땀 위에서 오늘날 수많은 미국 인재들이 ‘평화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으뜸기는 직장을 포기하고 우리 사회 교육 여건을 바꾸는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처음 대학에 보낸 TFA 홍보대사 모집 편지글 줄거리다.

1990년 2천 5백 명 지원자 가운데 뽑은 인재 500명이 남가주 대학 강당에 모였다. 예일대 출신 29명을 비롯해 터프



휴스톤에 있는 한 초등학교 수업모습

스, 프린스턴, 위스콘신, 밴더빌트, 하버드, 뉴욕주립대, 코넬, 브라운, 미시간 대학 출신들이 주류를 이뤘다. <뉴욕타임즈>는 1990년 6월 20자 헤드라인을 “프린스턴 학생 아이디어, 교사를 키우는 평화봉사단”이라고 뽑았다.

첫 해 교사 양성 여름 캠프 마지막 날 대표연설을 맡았던 레이 오웬스는 “우리가 만날 아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부질없으며 자포자기한 학생들이다.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정의를 약속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창조되었다고 선언한 미국이지만 이 학생들에게 ‘너희는 빼고라며 내팽개쳤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빼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으뜸 인재들이라는 사실은 이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고갱이는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존경을 얻어야 한다는 데 있다. 우린 저마다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녹아든 체험이 바로 미국 역사이고 인류 역사이다. 우리에게 던져야 할 물음은 ‘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낸단 말인가?가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던 말인가?’이다.”라고 외쳤다.

처음엔 웬디 콕이 지원자와 학교, 기부자들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나라 곳곳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다른 단체와는 달리 지원자 연봉을 줘야 했기에 많은 돈이 있어야 했다. 1990년 4월, 500명을 뽑아 교육캠프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 해 동안 쓸 돈 250만 달러 가운데 50만 달러도 채 마련하지 못했다. 그때 “웬디, 로스 페로 전화야. 받아 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웬디 콕은 장난전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로스 페로였다. 로스 페로를 만난 웬디 콕은 기부약속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각오로 두 시간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150만 달러를 끌어오면 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답을 끝냈다. 이 한 마디가 세상을 바꿨다. 펄 권들이 빙산 끝에서 머뭇거리다 한 마리가 바다로 뛰어들면 나머지 펄 권들도 덩달아 뛰어들 듯이 TFA에 고개를 가웃

거리던 사람들이 로스 페로가 기부를 약속했다는 소리를 듣고 앞 다투 돈을 내겠다고 나섰다.

미국 교육 연구 보고서들은 TFA 교사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정규 교사들이 가르친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했다. 2004년 ‘매서메타가 폴리시 리서치’는 TFA 교사가 가르친 학생들 수학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표준 편차가 0.15 올라 한 달을 더 교육받은 효과와 같다고 했다. 2008년 ‘어번 인스티튜트’도 “TFA 교사들은 고등학생 시험성적에서 정규 교사에 견주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은 오랜 경험을 뛰어넘어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과한 학생이 전교생 가운데 6퍼센트밖에 되지 않던 문제학교가 5년 만에 80퍼센트가 넘는 학생이 통과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TFA 교사들이 일궈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교사를 보내달라는 학교가 늘고 TFA가 만들어

내는 탈바꿈에 동참하려는 기부자가 늘고 있는 선순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 순풍에 돛을 단 듯 성장한다.

설립한지 7년째 되는 1997년에는 '티치 포 아메리카 주간'을 마련, 사회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일일교사로 초청했다. 클린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도나 살라라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영화 배우 앤드류 슈, 전 뉴저지 주지사 톰 키언, 전 국무장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헨리 키신저 그 이듬해에는 오프라 윈프리도 참여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앤서니 윌리엄스 워싱턴 시장을 비롯해 콘티넨탈 항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록스, 모빌 CEO들이 강의 체험을 하면서 TFA에 힘을 보태 절절매던 재정이 1998년, 1999년, 2000년 해를 거듭할 수록 수곳이 늘었다.

설립한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교사로 봉사했던 TFA 동문들은 곳곳에서 미국 교육환경을 바꾸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TFA 3기생인 데이브 레빈 Dave



TFA 교사들이 가르치는 곳

Levin은 텍사스 주 초등학교에 부임해 주재 공동 실시 시험에서 평균 이상 학생 비율을 17퍼센트에서 1년 만에 94퍼센트로 끌어올린 사람으로 마이크 파인버그 Mike Feinberg와 함께 빈곤 지역 중학생을 위한 특화형 차터 charter 스쿨 '지식은 힘이 다 Knowledge is Power Program, (KIPP)'를 만들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어떤 이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치료하려고 의사가 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으로 처음 교육감을 지내고 미국 공교육 개혁 전도사로 꼽히는 미셸 리도 TFA 3기생으로 2010년 10월 워싱턴 DC 교육감에서 물러난 뒤 교육단체 '스튜던츠퍼스트 StudentsFirst'

를 만들며 교육을 바꾸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 TF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방한한 웬디 콥은 삼성그룹 드림 클래스 현장 학교를 방문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참관한 뒤, 한국 교육 현황 간담회에서 "TFA 교사 70퍼센트가 교육계에 남는다. TFA 경험이 없었다면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인재들이다. 한국 대학생 에너지를 교육기부에 기울이면 사교육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케네디 상원의원과 해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에드워드 M. 케네디 서브 아메리카 액트'

서명 인준식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미국인 가치를 행동에 옮긴 앞선 사람들"이라고 '교육기부 아이콘 TFA'를 추켜세웠다.

2009년 비즈니스 위크가 조사한 첫 직장 순위조사에서 당당히 7위에 오른 TFA는 2010년엔 미국 인문계 학생 취업 지원 랭킹에서는 구글과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티치 포 아메리카는 "언젠가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은 빼어난 교육을 받게 된다. One day, all children in this nation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ttain an excellent education."는 꿈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떠오르고 느껴지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책을 읽으며 발견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슴 찡하게 느꼈던 감동이나 속마음 또는 친화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실행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안의 깊은 느낌이나 좋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면서 나누었던 소중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화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중한 책 한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clean94@daum.net

경주의 석탑② - 분황사 모전석탑

글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팀장)

경주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에서 길 건너쪽을 바라보면 허허벌판이 보입니다. 이 지역이 경주동부 사적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고(最古)의 천문대인 첨성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설화를 품고 있는 계림(鷄林), 신라 17대 임금인 내물왕릉 등 신라 고분들이 초원처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반월성에 올라 1742년에 축조한 보물 제66호 경주 석빙고를 보고, 석빙고 앞 길을 따라 동쪽으로 나가면 곧바로 안압지를 만날 수 있지요. 안압지는 월성(반월성)의 별궁으로 갖가지 희귀한 동물과 식물을 키우던 곳입니다. 복원된 곳이지만 전통의 연못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경주국립박물관 사

거리를 거쳐 북쪽으로 500미터쯤 이동하면 궁궐을 지으려던 터에 지었던 절, 황룡사지가 오른쪽으로 보이고, 이 황룡사지 북쪽 끝에 분황사가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제가 경주 답사에서 걸었던 길을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만나질 정도면 답사가 가능합니다.

분황사는 신라 선덕여왕 3년(634년)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이 때 분황사 모전석탑도 함께 세워졌는데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이 돌들을 쌓아 만든 탑입니다. 이 탑은 분황사 창건 당시에 9층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 탑신은 3층까지만 남아있습니다. 이 모전석탑은 국보 제30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불교문화 유산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막돌을 쌓아 기단을 1층으로 만들고 그 위에 탑신



분황사 모전석탑의 인왕

을 세웠는데 1층 4면에는 감실을 만들고 각 감실 입구 양쪽에 인왕(금강역사)을 부조로 깎아 세웠습니다. 모든 인왕상이 험차고 강한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실을 만들고 돌문을 달은 것은 목탑의 형식을 계승한 모습입니다. 또 기단의 각 모서리에 사자상을 세웠는데 바다 쪽은 암사자, 내륙 쪽은 수사자를 세웠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이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지붕돌은 아랫면과 윗면이 모두 계단모양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데 3층의 지붕돌만 윗면이 네 모서리에서 등글게 솟아 오른 모습입니다. 또 1층 몸돌을 쌓은 후 2층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이 석탑은 신라의 석탑들 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임진왜란 때 많이 훼손되었는데 1915년 일본인에 의해 수리될 당시 탑 안에 사리함과 구슬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이 유물들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후 2011년에 다시 한 번 수리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신라의 국교가 된 이래 경주는 여전히 불국토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도시 곳곳에서 아직도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천천히 걸으면서 천년고도의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중앙모임 (02-741-4696~7)

민족의 명절 설날을 외로운 이웃과 함께 나누세요

2월 10일은 우리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설날 그믐날 자정이 지나 자마자 북소리장사들이 북소리를 한 짐 메고 골목을 다니면서 이것을 사라고 외치고, 각 가정에서는 1년 동안 필요한 수량만큼의 북소리를 사는데, 일찍 살수록 좋으며 집안에 걸어두면 복이 담긴다고 믿었습니다. 또 미리 마련해둔 설빔을 입고,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 정초의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올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한해의 운수대통을 축원해줍니다. 이웃 및 친인척을 찾아서 세배를 다니는 일도 중요한 풍습이지요. 그러나 가족이 없이 홀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모임은 그러한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해도 마음으로서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명절후원물품을 전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 하실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봉사자 모집

요즘은 단순히 옷을 입는다는 개념을 벗어나 개성, 창의, 디자인, 패션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새롭게 구매해 입는 것보다 예전에 입던 옷을 수선하여 개성에 맞춰 입는 풍토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 또한 생활 속 작은 실천운동으로 안 입고 못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의류 전문가나 환경운동가는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분들로서, 나 하나 청정하게 생활하면 두루 온 세상이 청정할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소모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재단이나 디자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참여의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후보 추천하세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류 추천 받습니다. 본모임 창립 이후 20년째(2012년 까지 총

450명의 학생/총 지급액: 약6억 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은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의 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소 성적은 뒤처지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추천해주세요. 단 정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 3월부터 변동사항 안내

본모임은 생태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매주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신청은 전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수시 접수받으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또한 매월 연속 참여는 불가능하며, 신청 후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기자를 위해 3일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화장품 강좌에 참석하는 분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조용히 집중해서 따라하면 되며, 신청 후 3회 이상 취소하는 분에게는 참여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강좌 진행에 변동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회원 할인 요건 : 회원 가입 및 후원금 납부 후 3개월 이후부터 회원가 적용. 단 1년내

후원내역이 없거나 길상사 신도 또한 후원내역이 없으시 할인가 미적용함.

- 삼푸 ▶ 로션 ▶ 에센스 ▶ 비누는 진행 순서일 뿐,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취소되며, 본모임의 일정상, 강사 사정상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다섯째 주에는 계절에 따라 특강 강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재료비의 상승으로 참가비의 변동이 있습니다.

구분	회원가	비회원가
세라미드 로션	8,000원▶9,000원	11,000원▶12,000원
한방 비누	11,000원▶12,000원	14,000원▶15,000원

- 장소 : 길상사 세계일화실(비누는 맑고 조리장)
- 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천연화장품 구입은 4월에서 10월에 열리는 녹색장터에서만 가능합니다.

2013년 숲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마을 숲은 민족문화의 웅심이 같은 문화적 자연유산입니다. 사람에게 비할 수 없는 장구한 수명을 가진 나무들이 살고 있고 외적 형상은 마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요즘 말로 랜드마크(크고 중요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물)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 숲기행은 전통마을의 생활상을 통하여 마을 숲이 어떻게 조성되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1. 주제 : 전통마을과 마을 숲
2.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예정지 : (변동될 수 있음)

- 양동마을(경북 경주), 외암마을(충남 아산), 왕곡마을(강원 고성), 한 개마을(경북 성주), 하회마을(경북 안동), 무섬마을(경북 영주), 삼사마을(경남 산청), 원터마을(경북 봉화)
-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활동 3월 중순까지 중단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전관 구조 보강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기간은 1월 21일부터 4월 21일로 4월 22일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점심 급식 식당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3월 11일까지 부분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본모임 자원봉사활동은 3월 18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봉사자께서는 시간 내셔서 이 기간 동안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우편 발송 안내

본모임은 연 5,000원 이상(우편비) 후원하시는 회원님에게, 길상사에서 여러 기도, 불사에 동참하시는 신도님께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

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소식지를 우편 발송한 후 본모임으로 되 돌아오는 부수가 평균 20여부 됩니다.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로 사무국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서 확인 후 재발송해드리지만 간혹 연락이 안 되거나, 후원내역이 없는 분 또한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득이 개별 우송이 중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님 중에 익명으로 후원하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 길상사에서 소식지를 받아보다 중단된 분께서는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적절히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하셨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원님! 연말정산 하셨습니까? 지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는 만큼 돈도 번다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면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로 인해 간편하게 조회, 출력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요. 중앙모임도 2011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한 번에 조회에서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본모임은 회원님의 정성을 소중히 알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장터 수익금으로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에 난방비 지원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매월 지급받는 생계비 중 일부를 난방비로 저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제 형편상 저축이 쉽지 않습니다. 월동 준비가 큰 목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찾아 월동 난방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지난 한 해 동안 녹색나눔장터와 의류리폼,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를 통한 수익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한정된 지원이었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 난방비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홀로어르신 및 조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전기장판 외에 아예 난방을 하지 못하고 겨울을 나는 4가구가 파악되어,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물품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이백육십만원이 집행되었고, 1인당 평균 후원금액은 삼십 만원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때론 큰 희망이 됩니다.

이번 겨울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독거노인들의 죽음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고독사’가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뒤늦게나마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의 외로운 몸은 멀어지는 것일까요? 고독사의 문제는 그들이 죽을 때 외로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살아 있는 내내 외로웠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팽창으로 트위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의 친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든 접속해 친구를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대한 곤경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의 수많은 연락처와 페이스북에 넘쳐나는 친구 중 손을 뻗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은 지나치게 늘어나는데,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연사회(無緣社會)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연사회란 사회구성원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연(緣)이 끊어진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고시원 침대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 둔 청년,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부패한 냄새로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던 60세의 할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본모임의 전화말벗 자원활동은 무연



시대에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밀반찬 나눔, 전화말벗 - 불교방송TV, 불교TV 방영

올 1월부터 본모임 활동이 여러 방송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TV에서는 성도절 특집프로그램 '지금, 여기서 깨달음'으로 길상사의 신행활동과 본모임 밀반찬 나눔 활동이 소개되었고, BTN 불교TV에서 기부 프로젝트 '생방송 보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밀반찬과 전화말벗 사례관리 대상자인 정분환 어르신 의 사연을 소개하여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송을 보신 후 정분환 할머니에게 도움을 나누고 싶으신 분께서는 식료품을 후원해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봉사자 모집

2013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밀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새해 새 마음으로 참여를 권장 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

실 분은 연락주세요.

중앙모임 상근활동가 업무 안내	
홍정근	- 사무국장(법인 및 중앙모임 총괄)
황순재	- 사업부장(중앙모임 각 활동 총괄)
염현경	- 총무팀장(재무, 회원관리)
김소영	- 자연사업 팀장(환경활동 주간)
이예진	- 세상사업 간사(봉사활동 주간)

더욱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이 아니

만 본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본회 회원이 아닌 분은 후원하신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5일(화),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매주 목-7,14,21,28일/금- 1,15,22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일복 차림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첫째, 셋째 일요일(3일,17일)/설 명절로 인해 날짜 변경됨/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3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 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자원활동/셋째 일요일(17일)/설 명절로 인해 날짜 변경됨/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매월 셋째 목요일(21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2월 6,13,20,27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대구모임 (053-753-8883)

2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일로급식 및 웃음치료/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소리녹음봉사/매주 월요일-개별녹음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7시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첫마음 소식지 정기 편집회의/둘째 토요일 오후4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2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동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경남모임 (055-266-0170)

2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보림청소녀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2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쌀, 고춧가루, 야채, 김, 자반, 미역, 계란, 참기름 등)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 기도

- 일정 : 2월 2일 (오후7시~9시)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2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16일 (토) ~ 17일)
넷째 주말 23일 (토) ~ 24일)
- 참가비 : 5만원(입금순 50명)

입춘(立春)기도 안내

- 일정 : 2013년 2월 4일(입춘날)
- 일시 :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만원

정초기도 안내

- 새해 한해를 시작하는 정초기도에 동참하셔서 올 한해도 무해무탈 하시길 시방삼세 부처님전 발원 드립니다.
- ※ 정초기도 기간 중 오후 2~4시까지 자비도량참법기도가 주지스님 집전 하에 설법전에서 봉행됩니다.
- 일정 : 2013년 2월 12일~2월21일(10일간)
 - 시간 : 오전 9시30분 (극락전)

- 동참금 : 삼만원
- 문의 및 접수 : 총무소 02)3672-5945/6

춘계 관음기도 안내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묘약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추해지고,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영혼의 빛은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님 염송 속에 부처님께 한발 더 다가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입재 : 2월 25일

설 합동차례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기 위하여 설날 합동차례를 모시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2월 10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불교 입문 개강 안내

- 기간 : 2013년 2월 13일(개강)-5월 2일(종강 예정) 매주 수요일/3개월 12주 과정
- 수업시간 : [주간반]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저녁 9시 30분

불교대학 제4기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대학 제4기가 3월14일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주간 야간반으로 진행되며 1년 2학기제입니다. 지원 자격은 불교입문 강좌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하시고 불교의 바른 이해와 수행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접수는 인터넷이나 교무실(3672-0036)로 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3월 2일	오후 7시	극락전
관음재일	3월 5일	9시 50분	극락전
법정스님 3주기 기재	3월 7일	9시 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3월 9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3000배 철야정진	3월 9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극락전
보름	3월 26일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29일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 저녁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 저녁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적묵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오후1시 20분	소강당

